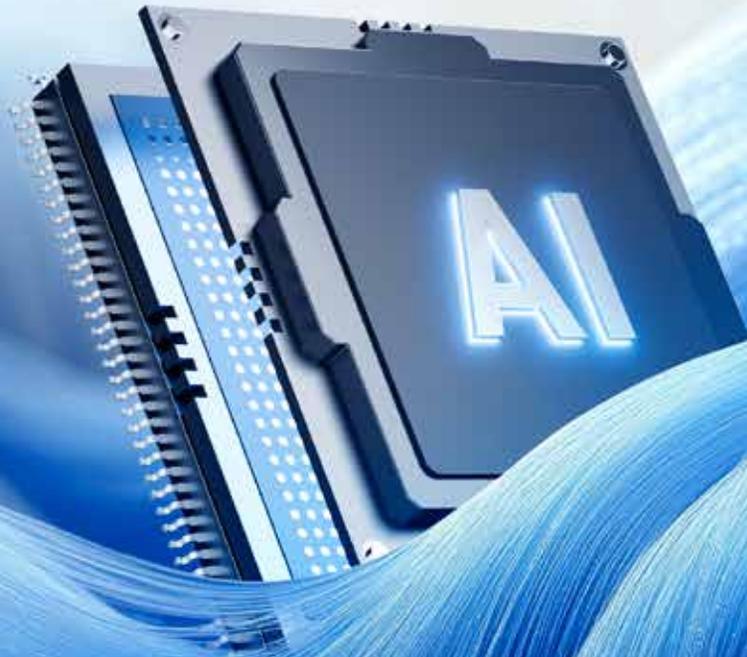


CHANGE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2025 FEBRUARY
Vol.265

AI로 연결된 비전, 함께 이루는 미래

삼정KPMG 뉴스레터 + FEBRUARY 2025

CONTENTS

Vol
265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CES 2025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는?

08 Market Reader

바야흐로 리워드 소비 시대,
유통·소비재산업 트렌드 엿보기!

10 Team Story

미국 IPO 성공 이끄는 전문 파트너!
US IPO TF팀

12 Client+

식품·화학·의약바이오 망라하는
100년 기업 '삼양그룹'

14 Expert's Advice

IFRS 18 도입,
그 영향과 준비 방안은?

16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18 인재양성소

졸업을 축하합니다!
새내기 삼정인, "나에게 쓴 응원의 편지"

20 삼정동호회자랑

건강하고 행복한 달리기!
마라톤 동호회

22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폴란드 Korea Desk 편 by 이승훈 Director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용기를 내자

26 心 Care

불확실성에 맞서는 신뢰의 힘:
어떤 사람을 신뢰하나요?

28 Samjong News

다양한 매체 리그테이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 외

COVER
STORY



최근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시장이 확대되고, AI 모델 및 AI 반도체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포착하고, 산업별 경험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Channel'을 웹페이지로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ES 2025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는?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기술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종합 ICT 전시회이다. CES 2025는 첨단 기술로 뛰어든다는 의미를 담은 'Dive in'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올해 CES는 참가기업 4,800여 개사를 기록하며 2024년 규모보다 확대됐다. 특히 한국 기업은 처음으로 1,000개사를 넘어서며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CES에 참가했다.

델타항공-라스베이거스의 구형(球形) 건축물 'Sphere'에서 진행된 기조연설

'AI 에이전트'와 '온디바이스 AI'로 고도화되는 AI 시장

CES 2025의 10대 트렌드로 ①AI ②로봇 ③모빌리티 ④스마트홈 ⑤XR(확장현실) ⑥디지털 헬스케어 ⑦라이프스타일 테크 ⑧스페이스 테크 ⑨ESG(환경·사회·지배구조) ⑩스타트업을 꼽을 수 있다.

먼저 AI 트렌드로는 기술력 확대와 함께 AI를 탑재한 디바이스가 더욱 다양화됐다. 이에 CES 2025에 참여한 AI 기술 기업은 보안성을 높이고 AI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 에이전트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 비서처럼 다양한 기능

으로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로는 아마존의 AI 음성 비서 '알렉사(Alexa)'를 활용하여 출시 예정인 '에코 프레임스(Echo Frames)'와 SK텔레콤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출시할 예정인 모바일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Aster)'가 새롭게 등장했다.

또한 디바이스 내에서 AI가 운영되어 보안성이 높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스트패스, 슈프리마 AI 등의 핀테크 기업이 CES 2025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온디바이스 AI 산업의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한정된 배터리 자원을 가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많은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는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와 모빌린트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활용성을 강화한 저전력 AI 반도체 제품을 공개하며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로봇 시장이 주목받아

로봇 분야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더욱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정용 로봇 제품을 선보였다. 중국 로보틱스 기업 헝봇 이노베이션(Hengbot Innovation)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실제 강아지처럼 감성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 '시리우스(Sirius)'를 공개했다. 일본 로보틱스 기업 믹시(Mixi)는 시각, 장기기억 등의 기능을

기반으로 이용자와 주변 환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과거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하여 대화 내용을 구성하는 등 정서적인 공감 기능을 강화한 로봇 '로미(ROMI)'를 통해 로봇 시장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요성 확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반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행, 보안 및 연결성 강화 분야와 함께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도 모빌리티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 요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CES 2025에서도 SDV 분야 기술 홍보를 위해 다양한 기업의 시연 제품이 화제를 모았다. LG전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인식하여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 개선 및 위험 상황 파악을 통한 안전 성능 개선을 도모하는 솔루션 '인캐빈 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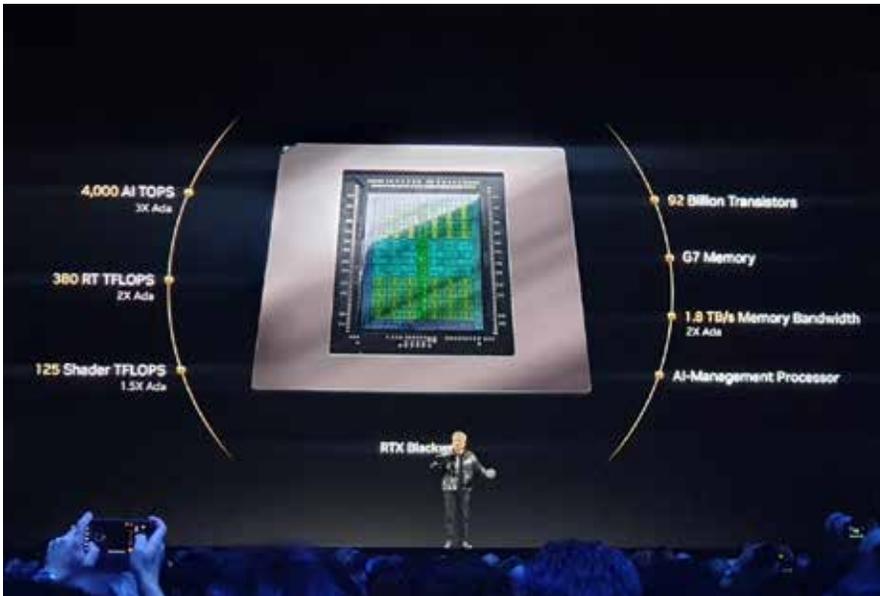
싱'의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사 콘티넨탈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위치한 2개의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AI 어시스턴트, 인터랙티브 위젯 등의 기능을 운전자 감성 기반의 디자인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이모셔널 콕핏' 제품을 선보였다.

스마트홈 산업 내 AI 기술 고도화... 기기 연결성과 사용자 맞춤형 기능 강화

CES 2025에서는 스마트홈 산업 내 고도화된 AI 기술, 연결성 강화, 그리고 AI 도입과 함께 중요해지는 보안 부문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가전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통합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Home AI'를 선보이며, 사용자 맞춤형 환경이 구현되고 일상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미래를 그렸다. 또한 삼성전자의 최첨단 데이터 보안 솔루션인 'nox 매트릭스(Knox Matrix)', 'nox 볼트(Knox Vault)' 홍보에도 비중을 두었다.

LG전자는 감성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을 강조한 전시관을 조성했다. CES 전시관 입구에 LED 사이니지 700여 장을 이어 붙인 거대 키네틱 LED 조형물을 구성하여 LG의 혁신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일상의 모습을 그렸다. LG전자는 AI 기술, 디자인, 사용성 면에서 진일보한 프리미엄 가전제품 브랜드 'LG 시그니처 존'을 구성하여 투명 OLED 기술과 AI 기반 식재료 관리 솔루션이 적용된 스마트 인스타뷰 냉장고 등을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중국 가전업체 TCL은 AI 동반자 로봇 '에이미(AiME)'를 최초 공개했다. 스마트홈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갖춘 에이미를 통해 통합 가전 제어 등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모습을 홍보하고, 일상 속 AI 비서로서의 역할을 선보이며 가전용 로봇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엔비디아 - 엔비디아는 올해 CES 관련 검색 키워드(Google Trends) 1위를 차지함.
젠슨 황 CEO의 차세대 AI 반도체 제품 공개 기조연설

삼성전자(상) - 'Home AI' 탑재 스크린 가전 전시 전경
LG전자(하) - LG 시그니처 OLED T28대로 구성된 초대형 미디어아트



CES 2025 10대 트렌드

1 AI(인공지능)	2 로봇	3 모빌리티	4 스마트홈	5 XR(확장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사례가 확대됨 • AI운용을 위한 인프라 강화 중요성이 강조되어 AI반도체 등 인프라 기술력이 주목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산업 현장 활용 가능 로봇 공개 • AI가 접목된 가정용 로봇,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로봇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 강화를 위한 센서, 홀로그램 등의 기술 확대 노력이 이어짐 • 육상뿐 아니라 공중비행을 통하여 모빌리티의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화된 AI, IoT 기반 스마트 가전, 가정용 로봇 및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이 선보임 • 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타 산업 생태계와의 연결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XR 디바이스, 디지털 트윈 및 미디어-엔터테인먼트 XR 두각 • XR과 AI, 로보틱스 등의 기술이 함께 접목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 공개 
6 디지털 헬스케어	7 라이프스타일 테크	8 스페이스 테크	9 ESG	10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 제품 등장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 가치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식품·화장품 등 의식주 라이프스타일에 기술을 접목한 라이프스타일 테크 확산 • 패션테크, 뷰티테크, 푸드테크, 펫(Pet)테크 등 외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우주 탐사 로봇 등 우주 환경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격 탐사' 솔루션이 주목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실행과 함께 '인간 안보' 부각 • 탄소배출 감축에 집중하는 '에너지 전환'이 조명되며 '에너지 테크'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벤처·스타트업 역대 최대 규모 참가 • AI 기술 기반 제품 및 솔루션, 헬스케어, ESG 혁신 기술을 선보인 스타트업의 참여 부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는 소금을 실제 먹지 않고도 짠맛을 느낄 수 있는 '전자 소금 손가락'을 선보였다. 저염식이 필요하나 짠맛도 원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손가락 끝에 미세 전류를 흘려 짠맛을 느끼게 하는 근원인 나트륨 이온을 강화한 기술로, 푸드테크 기업 가운데 큰 관심을 받았다.

CES 2025에서 드러난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은?

CES 2025를 통해 확인한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AI의 시장성 강화와 AI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CES가 AI의 잠재력을 보여준 데 이어 올해 CES에서는 AI의 시장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행보가 부각됐다. 특히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 등을 통해 보안이 강조되는 핀테크, 모빌리티 등의 영역에서도 AI의 활용 전략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첨단 기술 고도화를 둘러싼 완성차·빅테크의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CES에서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를 포함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및 제품이 주목받은 만큼, 디스플레이와 차량 제어 콘셉트 등이 상호작용하는 기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 중심의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에이징 테크(Aging Tech)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와 탄소 배출 감축에 집중하는 에너지 전환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CES에서도 맞춤형 의료, 홈케어

등의 에이징 테크 키워드가 주목받았다. 아울러 화석연료의 급격한 퇴출보다는 탄소 배출 감축에 집중하는 에너지 전환 트렌드가 새롭게 부상했다. 이에 향후 에이징 테크,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관련 혁신 기술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경제연구원 최창환 책임연구원
Tel. 02-2112-7438
E-mail. changhwanchoi@kr.kpmg.com

경제연구원 류승희 책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seungheryu@kr.kpmg.com

바야흐로 리퀴드 소비 시대, 유통·소비재산업 트렌드 엿보기!

‘현대 사회는 흐르는 액체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고 가벼우며 예측할 수 없다.’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 이론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처럼 고정된 소비 패턴이 사라지고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리퀴드 소비(Liquid Consumption)’ 시대를 맞이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리퀴드 시대에 주목할 만한 소비 트렌드를 살펴본다.



오늘날 소비 시장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상태에 있다. 소비자의 취향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며, 한 때 유행했던 것도 금방 수그러들고, 특정 브랜드에 높은 충성심을 보이던 소비자는 어느새 뒤돌아서 다른 브랜드를 옹호하기도 한다. 과거 솔리드 소비 환경에서는 ‘가격’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으나,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경험적, 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기준이 팍 찬 상태인 육각형 소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육각형을 구성하는 주요 소비 기준에 따라 관찰되는 소비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7가지 키워드

요즘 특히 두드러지는 소비 양상은 ‘소비 양극화’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옐로(YOLO, You Only Live Once)와 플렉스(Flex)를 외치던 2030세대 주요 소비자의

소비 기준점이 ‘절약’으로 이동하며 요노(YONO, You Only Need One)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이 항상 요노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품은 저가를 선호하면서도 본인의 관심사를 충족할 만한 취미 생활이나 희소 가치 있는 물건에는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는 양가적 소비 패턴이 관찰된다. 가령 메가커피·뽕다방 등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활발히 이용하는 소비자도 가끔씩 값비싼 두바이 초콜릿이라든지 호텔 디저트를 통해 작은 사치를 즐기기도 한다. 앞으로는 중간 가격대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초저가와 초고가로 시장 양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다. 잘파(Zalpa)세대는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등으로 독특한 경험 요소를 제공하는 팝업스토어에 열광한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하

게 경험할 수 있는 구독경제 역시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구독 서비스는 기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넘어 TV·노트북 등 생활가전 렌탈을 비롯해 맞춤형 건강 식단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다.

흔히 시성비(시간대비성능)라고도 일컬어지는 ‘타임퍼포먼스(Time Performance)’ 역시 눈여겨보아야 할 소비 트렌드 중 하나다. 가성비 넘어 시성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 기준이 이동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시성비 니즈로 인해 가사노동, 육아, 장보기 등 생활 전반의 아웃소싱화가 진전되고 있다. 노동 감축에 가치를 느끼는 소비자는 식기 세척기, 로봇청소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거리낌 없이 지갑을 열 뿐 아니라, ‘런드리고’, ‘세탁특공대’ 같은 세탁 서비스 플랫폼과 ‘청소연구소’ 등의 홈클리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심지어는 대형 폐기물, 분리수거물 등 폐기물 종류에 상관없이 쓰레기를 대신 버려

여섯 가지 소비 기준에 따라 관찰되는 7대 소비 패턴을 도출

소비 환경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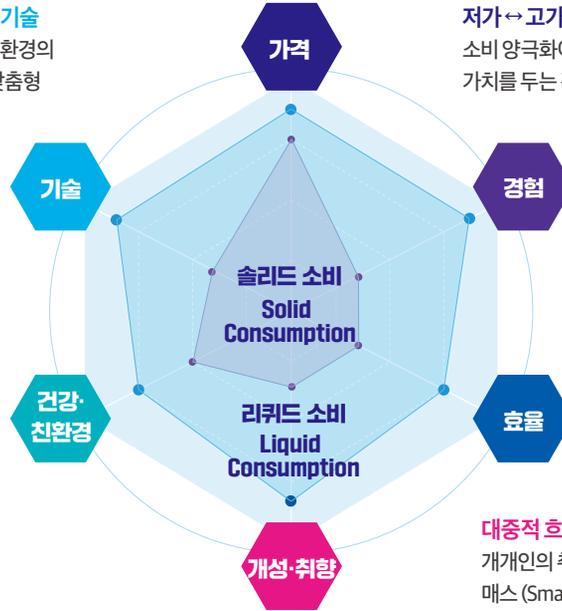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은 유통·소비재 산업에 스며들어 소비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 피지탈(Phyisital) 매장, 맞춤형 서비스, AI 기반 콘텐츠 등이 부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 확대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찰되는 '헬스디깅' 트렌드에 따라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웰에이징(Well-aging)이나 셀프 메디케이션(Self Medication) 양상이 관찰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윤리적 경영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패턴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밸류체인 전반에서 강조



저가↔고가, 극단적 소비 패턴 심화

소비 양극화에 따라 생필품은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나 본인이 가치를 두는 것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확산

소유보다 경험과 실용적 가치 추구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MZ세대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팝업스토어 및 콘텐츠 중심의 여행·호텔상품이 각광

타임퍼포먼스(Time Performance), 의식주 전반으로 확산

시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확산되며 가사노동, 육아 등 생활 전반에서의 아웃소싱화가 관찰

대중적 흐름보다 개인의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

개 개인의 취향이 파편화되면서 대중적인 제품보다는 스몰 매스 (Small Mass)를 겨냥한 인디 브랜드 제품 등에 관심 집중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는 플랫폼도 생겨난 상황이다. 이처럼 타임퍼포먼스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시성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시간 효율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적인 취향보다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스몰 매스(Small Mass)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스몰 매스란,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의 시장이 예상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패션·뷰티업계는 소규모 소비자층의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신진·중소 규모의 인디 브랜드에 주목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옵션 안에서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앞으로 개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내세운 소비자들이 확대되면서 스몰 매스 중심의 시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한 라이프를 영위하

려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웰에이징(Well-aging)'이 2030세대의 주요 관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소비자들은 일찍부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하며 몰입적 소비를 이어가는 중이다. 당류가 없는 제로(Zero) 식품과 더불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개인별 타고난 체질을 손쉽게 분석하고 향후 질병 가능성까지 사전에 예측해 주는 DTC(Direct-to-Customer) 기반 유전자 키트가 부상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소비 환경에 대한 첨단 기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과 소비가 고도화, 초개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은 유통·소비재 산업에 스며들어 소비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기술 혁신, 사회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소비 패턴이 완전히 리퀴드하게 바뀌어 버렸다. 유통·소비재 기업이 리퀴드 소비 트렌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Rebalancing)이 필요하며, 니치 시장 발굴에 집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소비자의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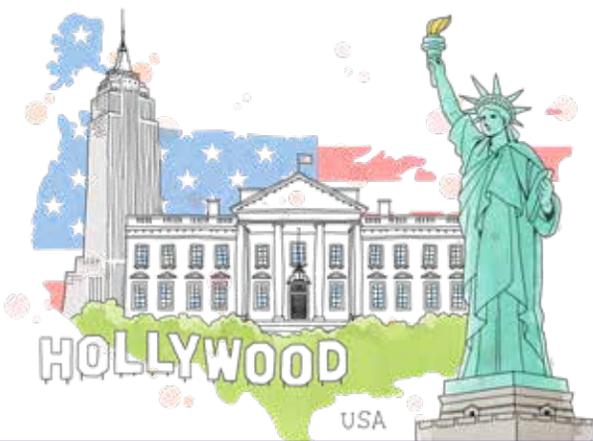
SG본부
신기진 전무
Tel. 02-2112-7738
E-mail. kshin1@kr.kpmg.com

경제연구원
김수경 수석연구원
Tel. 02-2112-3973
E-mail. sookyoungkim@kr.kpmg.com



미국 IPO 성공 이끄는 전문 파트너! US IPO TF팀

최근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아지고,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미국 시장의 IPO를 계획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US IPO TF팀을 소개하려 한다.



국내 기업의 미국 상장,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해

국내 주식 시장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 자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 요건과 재무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US GAAP(미국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국제회계기준)로의 회계기준 전환은 기업들에게 큰 도전일 수 있으며, PCAOB 감사기준에 따른 수감 역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Foreign Private Issuer나 Emerging Growth Company로서 특례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US Flip)할 경우의 세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상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미국 상장이라는 어려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경험과 산업별 전문성으로

US IPO 상장 위한 토탈 서비스 제공!

삼성KPMG는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US IPO TF팀을 운영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IP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S IPO TF팀은 US IPO 준비 단계부터 진행 및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PCAOB 감사 전반을 지원하며, US GAAP 전환, US SOX 자문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국내 기업의 US IPO 과정에서 딜소싱, US GAAP 전환, Registration Statement 작성, PCAOB 감사 지원 등의 주요 업무와 함께 글로벌 세무 자문 및 기업 가치평가까지 아우르는 윈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성KPMG의 CMG Foreign SEC Filing Reviewing Partner로 참여해 US IPO 과정에서 수감 효율성을 높였으며, KPMG US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US IPO를 지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 웹툰, 케이웨이브미디어 미국 상장 성공 ...

한국 기업들 미국 진출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KPMG는 2021년 쿠팡(Coupang)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2024년 웹툰 엔터테인먼트(WBTN)의 나스닥(Nasdaq) 상장 그리고 2025년 케이웨이브미디어(KWM)의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로써 삼성KPMG는 국내 기업의 US IPO 전 과정을 자문한 국내 최고의 회계 전문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삼성KPMG US IPO TF팀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가장 먼저 찾는 회계법인이 되고자 한다.

US IPO TF팀 주요 서비스

- US IPO 준비, 진행, 종결 단계 전반 지원
- PCAOB 감사 지원
- US GAAP 전환
- US SOX 자문
- 글로벌 세무 자문
- 기업 가치평가(밸류에이션)
- 딜소싱





US IPO TF팀을 소개한다면?



“
미국 상장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

**강상현 상무
(ICE3)**
sanghyunkang
@kr.kpmg.com

우리 TF팀은 US IPO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US GAAP 전환, PCAOB
감사 대응, SEC 코멘트 처리 등 미국 상장 전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업계 최고의
US IPO 조세 전문가
”

**민우기 상무
(Tax3)**
wmin
@kr.kpmg.com

쿠광, 웹툰, 케이미디어웨이브의 US IPO
관련 세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US IPO 조세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및 US Flip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조세 업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
맞춤형 IPO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
”

**박영걸 전무
(Deal Advisory9)**
younggulpark
@kr.kpmg.com

대상 회사 상황에 최적화된 상장 전략 구축,
SPAC 선별, 투자자 유치, 관련 M&A 지원 등
IPO 전반에 걸친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화학·의약바이오 망라하는 100년 기업 '삼양그룹'

삼양그룹은 1924년 창립 이래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등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올해 새로운 100년의 시작점에 선 삼양그룹은 새로운 비전과 가치체계를 지표 삼아 스페셜티(고기능성) 사업을 통해 생활의 잠재력을 깨우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SAMYANG

1

설탕부터 대체 감미료까지...

종합 식품기업 발돋움

삼양그룹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설탕을 국산화하기 위해 제당 사업에 뛰어들었다. 식품사업은 1955년 울산 제당공장 준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올랐고 지속적인 설비 증설과 품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도 국내 제당시장 점유율 2위를 지키고 있다.

삼양그룹은 제당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과 제품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설탕과 전분, 물엿, 마가린, 쇼트닝 등 다양한 식품 소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식자재 제조와 판매, 유통을 아우르는 식자재유통 브랜드 '서브큐'를 론칭하며 종합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대체 감미료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식품사업

대표 스페셜티 아이템인 '알룰로스'는 자연계에 있는 희소당으로, 설탕 대비 70% 정도의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제로인 대체 감미료다. 과당과 물성이 유사해 음료나 과자, 유제품, 소스 등에 두루 쓰인다.

삼양그룹은 2016년 자체 효소 기술 기반의 액상 알룰로스 개발에 성공한 이후 설비 투자를 거쳐 2020년 양산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울산에 종합 스페셜티 공장을 건립해 연산 1.3만 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현재 삼양그룹은 B2C 프리미엄 당 브랜드 '트루스위트'와 B2B 브랜드 '넥스위트'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 알룰로스를 공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친환경 소재로 확대...첨단 소재 사업에도 진출

삼양그룹은 첨단제품의 부품 소재로 각광받

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높고 탄성이 우수한 고성능 플라스틱이다. 내열성이 높아 1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어 자동차 부품, 전자전자 부품, 기계부품 등에 널리 쓰인다.

1989년 폴리카보네이트 전문 생산기업인 삼양화성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공장을 세운 삼양그룹은 친환경 소재 사업을 강화해 옥수수 등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만든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 소재 '이소소르비드(Isosorbide)'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023년에는 재생 폴리카보네이트 원료가 90% 이상 함유된 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를 개발했으며,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과 차체구조용

부품, 전기차용 경량 배터리팩 케이스도 개발 중이다.

삼양그룹은 페트병 사업에도 진출해 1985년 전주공장에 일일 20톤 규모의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면서 페트 용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아세트릭 무균충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계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 기술은 음료의 모든 용기를 살균 처리하고 전체 제조 공정을 무균 상태로 관리하는 첨단 음료충전시스템이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재활용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삼양에코테크를 설립하고 페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페트병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삼양그룹은 글로벌 스페셜티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기업 케이씨아이(KCI)와 글로벌 스페셜티 케미컬 소재 회사인 '버든트(Verdant)'를 2017년과 2023년에 각각 인수했다. 2021년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PR) 소재 전문기업 '삼양엔씨켄'을 계열사로 편입

시켜 반도체 소재를 그룹의 핵심 스페셜티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생분해성 봉합사 세계 1위...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삼양그룹은 화섬사업에서 축적한 고분자 관련 기술과 산업용 원사 생산 기술을 접목해 1987년부터 외과수술 시 상처 부위 봉합에 쓰이는 수술용 봉합사 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1993년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개발에 성공하고 2023년에는 헝가리 괴뮐뢰 산업단지에 약 280억 원을 투자해 연산 최대 10만km 규모의 원사 생산공장을 준공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시장 리더십을 다졌다. 현재는 약 45개국 190개 이상의 기업에 5,000만 달러 규모의 원사를 공급하며 글로벌 봉합원사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양그룹은 항암제를 중심으로 의약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고형암 7종, 혈액암 5종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생산이 어려운 항암제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고, 개량신약을 개발해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 의약 공장에 액상주사제, 동결건조주사제를 합쳐 총

5백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세포독성 항암주사제 전용 공장을 증설했다. 이 공장은 미국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맞춰 증설했으며, 작업원과 제조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 작동하는 '아이슬레이터(isolate)' 시스템도 갖췄다.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유전자 전달체 'SENS (Stability Enhanced Nano Shells)'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SENS는 siRNA(짧은 간섭 리보핵산), mRNA(메신저 리보핵산)와 같은 핵산 기반 치료제 및 유전자 교정약물을 간, 폐, 비장 등의 다양한 조직의 특정 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 가능하게 하는 약물 전달 기술(DDS, Drug Delivery System) 플랫폼이다. 원하는 조직으로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원하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표적(Off target)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에 mRNA 전달체로 잘 알려진 지질나노입자(Lipid Nano Particle, LNP)와 달리 생분해성 고분자로 자체 디자인한 양이온성 지질을 도입해 안전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1 삼양그룹 폴리카보네이트
- 2 삼양사 알룰로스 제품 이미지
- 3 삼양바이오팜 헝가리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생산설비
- 4 삼양패키징 광혜원 공장 내부 전경



2



3



4

IFRS 18 도입, 그 영향과 준비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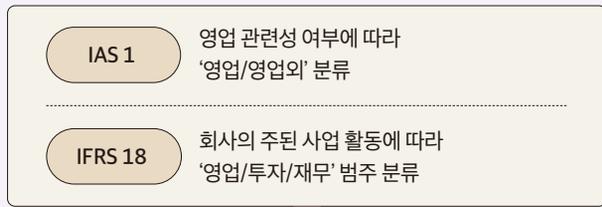
2027년 국제회계기준 IFRS 18 기준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기준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삼정KPMG는 IFRS 18 서비스팀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을 위해 IFRS 18 기준서 개정 사항에 따른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IFRS 18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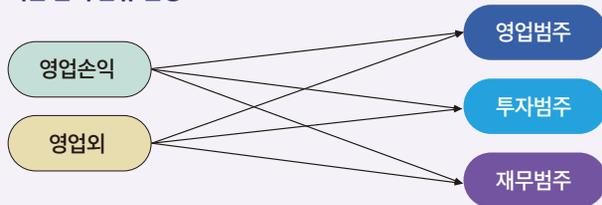
Q 2027년에 본격 도입될 IFRS 18,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재 IFRS 기준서에는 '영업손익' 개념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통해 '영업손익'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IFRS 18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주된 사업 활동에 따른 '영업손익'과 K-IFRS에서 정의된 '영업손익'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IFRS 18 도입으로 인해 손익계산서 표시에 미칠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손익 범주 변경



기존 손익 분류 변경



MPMs

- 경영자가 정의한 성과 측정치 개념 신설

#1. 손익계산서 형태의 구조화 및 손익의 범주별 구분

IFRS 18에서는 아래와 수익과 비용을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 범주를 구분하는 중간합계가 표시되므로, 재무정보이용자는 기업의 손익이 어떠한 범주를 통해 창출된 것인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기업 예시		
영업	매출	X
	매출원가	(X)
	매출총이익	X
	기타영업수익	X
	판매비	(X)
	연구개발비	(X)
	일반관리비	(X)
	영업권손상차손	(X)
	영업이익	X
	투자	지분법손익
기타 투자손익		X
이자수익		X
재무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	X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X)
법인세	퇴직급여부채 이자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중단영업	법인세비용	(X)
	계속영업이익/손실	X
중단영업	중단영업이익/손실	(X)
	당기순이익	X

영업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 •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수익/비용
투자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원천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기업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예: 투자부동산)
재무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과 관련된 수익/비용

#2.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은 IFRS 18에서 정의한 매출총손익, 이와 유사한 중간합계, 유·무형자산 상각비 및 손상 차감 전 영업손익,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등 중간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 측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외에 외부의 커뮤니케이션(예: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서 사용되며, 경영진의 재무성과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손익의 중간합계입니다. 외부에 기업의 성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손익의 중간합계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무적으로 MPM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도입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상장사에 대한 IFRS 18 도입 시의 효과 분석 결과, 유·무형자산 손상 차손 및 지분법손익이 IFRS 18 기준 영업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히 영업이익률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이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학계에서는 현행 K-IFRS 기준 영업손익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 IFRS 18을 도입할 경우 현행 기준의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IFRS 18 도입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에게 금융을 제

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 활동인 점을 감안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현행 손익계산서와 유사하게 영업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조달부채 이자비용을 재무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영업손익에 포함되었던 외화환산손익 등을 원천에 따라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구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손익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Q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IFRS 18 기준서가 기업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IFRS 18 기준서에 따른 비교표시 과거 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영향 분석 및 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18 도입 영향 분석 • 영업손익 변동성 관리 방안 수립 • 계정의 통합화 세분화 검토
	CoA 체계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된 범주에 따라 수익과 비용 재분류 • 계열사 간 상이한 영업 범주 CoA 체계 정비
	연결 결산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제공 연결 Package 영향 검토 • 해외 현지법인의 Conversion 이슈 사항 검토
	재무제표 산출 및 주석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생성 및 수정 필요 주석 분석 • 변경된 분류에 따른 XBRL 업데이트
기타	MPM 벤치마킹, 기업에 적합한 MPM 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손익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변경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매뉴얼 등 문서 정비

최재혁 전문 (B&F3)

Tel. 02-2112-0147
E-mail. jaehurkchoi@kr.kpmg.com



김성배 전문 (IM4)

Tel. 02-2112-7404
E-mail. sungbaekim@kr.kpmg.com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최근에 가장 이슈를 모으는 신조어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알쓸사전'에서는 2025년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와 고령화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른 트렌드를 소개한다.

2025년 미국 증시 키워드

'배트맨(BATMMAAN)'

'배트맨(BATMMAAN)'은 2025년 미국 증시를 주도할 8대 기업을 이르는 말인데요, 기존의 미국 7대 기술 기업을 이르는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7)'에 브로드컴(Broadcom)이 추가되어 이와 같은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8대 기업은 브로드컴(Broadcom), 애플(Apple), 테슬라(Tesl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메타(Meta), 아마존(Amazon), 알파벳(Alphabet), 엔비디아(NVIDIA)으로, 모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클라우드·전기차 등 첨단기술 산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주식시장을 이끌 배트맨에 주목하고 있어요. 지난해 초부터 12월 30일까지 배트맨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무려 74%에 달했는데요, **기업별로 살펴보면 브로드컴 146%, 애플 29%, 테슬라 75%, 마이크로소프트 15%, 메타 66%, 아마존 50%, 알파벳 35%, 엔비디아는 무려 174% 상승**했습니다. 2025년에는 배트맨 기업들의 주도로 기술 혁신과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확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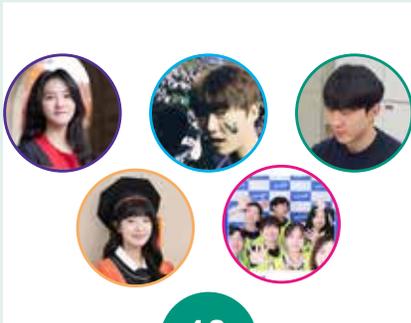
에이징테크(Aging-tech)

고령화 시대에 확 뜨고 있는 기술이 에이징테크(Aging-tech)라고 합니다. 에이징테크는 노화(Aging)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안전,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의료비 지출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확장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글로벌 에이징테크 시장 규모는 2019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하여, 내년에는 3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CES 2025에서도 에이징테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다양한 혁신 기술이 소개된 바 있어요.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80%가 스마트홈 기술을 에이징테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52%는 이미 에이징테크 제품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에이징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18



20



22

인재양성소 18

졸업을 축하합니다!
새내기 삼정인, “나에게 쓴 응원의 편지”

삼정동호회자랑 20

건강하고 행복한 달리기!
마라톤 동호회

세계가 열린다 22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폴란드 Korea Desk 편
by 이승훈 Director

이동규의 두줄칼럼 24

용기를 내자

心 Care 26

불확실성에 맞서는 신뢰의 힘:
어떤 사람을 신뢰하나요?

Samjong News 28

다양한 매체 리그테이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 外

졸업을 축하합니다! 새내기 삼정인, “나에게 쓴 응원편지”

2월, 졸업의 달을 맞아 삼정KPMG 가족 중에도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은 이들이 있다. 삼정KPMG는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삼정인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전했다. 이번 호에서는 새내기 삼정인들이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편지를 작성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나눴다.

- 김미나 Associate (Tax1)

안녕, 미나야! 나에게 편지 쓰기는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대학교에서 축제를 구경하고 밤늦게까지 동아리 활동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런데 이제 2025년 새해부터는 많은 걸 배웠던 학교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됐어.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앞으로 맞닥뜨릴 시즌이 걱정되기도 해. 당장 완벽하게 일을 해내긴 어렵겠지만 많이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한 내가 되어있겠지? 그리고 또다시 오래 기억에 남을 새로운 추억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최근에 든 생각인데, 나는 이 분야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지금보다
더욱 성장한 나를 기대할게!”



← 입사 후 동기들과 함께
↓ 대학교 졸업 사진



“준비된
사람이 되자”

← 동기들과 연수 기간
↓ 대학 축제 때 모습



- 신재문 Associate (IGH)

지난 7년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 정말 꿈만 같아. 군대 가기 전에는 후회 없이 놀았고, CPA 수험생활 때는 후회 없이 공부하며 매 순간 진심을 다했기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 거 같아. 졸업을 앞둔 지금 내 곁에는 소중한 동기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있어. 이 인연들이 앞으로도 평생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 삼정KPMG에서 함께할 대학교 선배, 동기들도 있어 마음이 든든하고, 앞으로 삼정KPMG에서 새롭게 만날 동료들과도 함께할 시간들이 매우 설레고 기대돼. 내 좌우명인 ‘준비된 사람이 되자’를 늘 마음에 새기며,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해나가고 싶어. 끝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를 잘 챙겨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IGH본부 선배님들과 동기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졸업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PMG #오늘부터 1일
#동기사랑 삼정사랑 #판부들



- 류영훈 Analyst (Deal Advisory8)

아직도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는 노트북을 들고 출근하는 내가 믿기지 않아. 그래도 삼성KPMG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나머지 단추들도 하나씩 잘 끼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사회 초년생으로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많이 배우며 행복하게 성장해보자! 파이팅!!!

“행복하게
성장해보자!
파이팅!!!”

→ 대학 시절 여행 중
↓ 입사 후 열일 모드!



↑ 입사 후 첫 송년회
→ 대학교 졸업 사진



- 김도경 직원 (회계팀)

대학 생활의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즐거웠어.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과제와 시험으로 바쁜 날도 많았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 이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고, 삼성KPMG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줬어. 입사 후, 선배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매 순간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어. 회사가 모두의 역량 발휘를 지원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큰 사명감과 자부심도 얻었어. 물론 때로는 묵묵히 일해야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핵심이라는 걸 알기에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정신처럼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 회사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로 성장하고 싶어. 초심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우보만리의
정신처럼
파이팅!”

- 김혜림 Associate (CM1)

안녕 혜림아! 말로만 듣던 회계사 시즌 초입에,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됐어. 많이 피곤하지? 20살 겨울, 대학에 입학해서 모든 게 새로웠던 때가 정말 생생한데, 어느새 25살이 되어 대학 생활의 마침표와 회계사로서 첫 시작의 경계에 서 있네.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잘 해내고 싶어서 아등바등 노력했던 경험, 추억들 덕분에 지금의 네가 있다고 생각해. 참 고생했고, 수고 많았다! 물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할 거야 ^^ 년 항상 네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왔으니,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졸업 축하하고, 회계사 합격도 축하해. 삼정인으로서, 회계사로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파이팅!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 입사 동기들과 함께
↓ 대학교 시절 친구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달리기! 마라톤 동호회

육상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운동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달리기에 폭 빠진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라톤은 단순히 신체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삼성KPMG의 마라톤 동호회를 만나본다.



함께 달리고, 함께 성장하는 마라톤 동호회

최근 가장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러닝이다. 건강한 신체와 러닝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달릴 수 있고, 달리며 느끼는 '러너스 하이'는 마음의 안식까지 얻을 수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삼성KPMG에도 오랜 시간 함께 달리며 성장해온 마라톤 동호회가 있다. 초보 러너부터 마라토너까지, 다양한 레벨의 러너들로 구성된 이 동호회는, 약 50명의 동호회원들이 주기적인 훈련과 대회 참가를 통해 달리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동호회는 이병훈 상무가 회장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직전 회장이었던 전원표 전무가 고문으로, 송기백 S.Manager가 총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과 팀워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활기찬 모임이라 자부하는 마라톤 동호회의 매력은 무엇일까? 동호회원들의 목소리로 들어본다.

완주하며 느끼는 성취감과 유대감, 그리고 짜릿한 희열!

정아름 Senior: 요즘 러닝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혼자 대회에 신청하는 게 번거로워 미루고 있던 차에, 법인에 동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됐어요. 동호회를 통해 마라톤에 참가하니 대회 신청부터 준비물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훨씬 수월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송기백 S.Manager: 지난해 11월 30일, 동호회원 43명이 모여 시즌 오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라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참가한 대회였지만, 완주 후에 느껴지는 성취감과 희열은 여전히 짜릿했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힘을 북돋아 준 덕분에 코스를 완주하는 과정이 훨씬 즐겁고 수월했던 거 같아요.

금동훈 Associate: 선배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호회원들과 함께 친취적으로(Courage) 목표를 설정하고, 결승점을 함께(Together) 통과해 달성함으로써 성취감과 유대감을 함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삼정KPMG 입사하자마자 바로 마라톤 동호회원에 가입할 거 같아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되찾은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

금동훈 Associate: 저는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계사 이후로 잊고 지낸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되새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겁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동호회를 통해 얻은 도전과 성취 경험으로 한층 더 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도 들어요!

정아름 Senior: 동호회 활동 덕분에 주말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했어요. 주말 아침 일찍부터 달리면서 하루가 길어진 기분이 들고, 동호회가 아니었다면 완주하지 못했을 마라톤을 함께 달린 덕에 성

취감도 크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껴요.

송기백 S.Manager: 바쁜 일상 속에서도 대회 참가를 목표로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특히 다양한 본부의 동료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모두 대환영! 혼자가 아닌 함께 달려요!

정아름 Senior: 혼자 완주하며 느끼는 뿌듯함과 여러 사람들과 웃으며 달리는 즐거움,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마라톤 동호회입니다. 주말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은 신 분들, 그리고 맛있는 뒤풀이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뒤풀이 맛집이거든요!

송기백 S.Manager: 하하. 우리 동호회 뒤풀이 너무 즐겁죠! 모두 완주의 기쁨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어 더욱 분위기가 좋은 듯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동호회 운영에 별도의 회비가 없다는 점이에요. 연 2회 대회에 참여하고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올해는 5월과 9월, 봄과 가을 두 차례 대회를 계획 중이며, 대회 외에도 소모임 형식의 러닝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금동훈 Associate: 우리 동호회원들은 ‘도전과 성취’를 맞본 분들이라 모두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나태함과 안일함을 벗어나고 싶은 당신! 함께 으쌰으쌰 하고 싶은 당신! 우리 마라톤 동호회로 오세요~! 모두 대환영입니다.



마라톤 동호회 참가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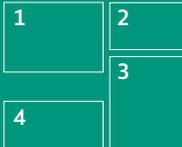
“일상 속 활력을 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동참해보세요!”
 이병훈 상무(회장): blee@kr.kpmg.com
 송기백 S.Manager(총무): gibaeksong@kr.kpmg.com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폴란드 Korea Desk 편 by 이승훈 Director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경제와 물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동부 유럽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폴란드 Korea Desk에 파견 중인 이승훈 Director(seunghlee@kpmg.pl)를 통해 폴란드의 현 상황과 진출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본다.



- 1 고객사 회의 이후 기념 사진
- 2 한국-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현장
- 3 KPMG 폴란드 전경
- 4 한국-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서 찰칵!



유럽의 허브, 폴란드의 현주소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및 물류 허브로 자리 잡으며, 오랫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독일과의 인접성 및 유럽 주요 시장으로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폴란드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와 숙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외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최근 폴란드는 유럽 내 전기차(EV) 배터리 제조 허브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수요 예측을 조정하고 생산 효율화를 진행 중이며, 이는 폴란드 내 관련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생산 라인을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소비자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지리적 인접성과 물류 거점 역할을 바탕으로 건설, 에너지, 물류 분야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전쟁이 점차 종전을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인프라, 에너지, 주택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대규모 프로젝트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건설, 에너지, 물류,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폴란드 진출, 내수 시장을 넘어 EU를 향해

폴란드에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넘어, EU 전체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물류와 공급망 관리를 위한 지리적 이점으로 작용한다. 폴란드 내의 주요 도시들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유럽 각지로의 상품 이동이 효율적이다.

또한,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단일 시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 이는 유럽 내에서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 없이 다양한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등 주요 경제국과의 인접성은 제조업, 물류, 유통 산업에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폴란드 내 소비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률을 감안할 때, 내수 시장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의 특성과 EU 규제, 그리고 현지화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격하고 복잡해진 노동법과 세법!

폴란드의 노동법과 세법이 강화되면서 기업 운영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관리와 연차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기업은 초과근무와 휴식시간 준수, 연차 사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금융 비용 공제 축소와 부가가치세 분리 결제 의무가 도입되어 세무 관리가 한층 복잡해졌다. 기업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EU의 환경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GDPR)도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개인정보 체계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에서의 비즈니스 에티켓은 친절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지만, 업무는 원칙과 계획을 중시하며, 일정 변경 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업무의 질과 정확성을 우선시한다. 또한,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해 개인적인 일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폴란드 Korea Desk



회계 및 세무 지원,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 지원, 그리고 한국 기업과 KPMG 폴란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폴란드 Korea Desk는 회계, 세무, 법률, 그리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한국과 폴란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용기를 내자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사회 전체가 먹고사니즘이다. 요즘 같은 난세엔 “때로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용기가 될 때가 있다”고 고백한 로마 네로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Seneca)의 목소리가 새삼 크게 들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 용기(勇氣)다. 삶에서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예상도 못 했던 행운이나 기회도 그 사람의 용기를 뒤따르는 법이다.

용기의 무게

여기서 동양학 최고봉 주역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궁변통구(窮變通久)’의 이치를 꺼내 보자. 이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통하면 오래 가고, 오래 가면 다시 궁해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久則窮)”라는 순환론적 우주관이자 인간 삶의 진리다. 이 말의 핵심은 사물이 극에 달하고 궁할 때는 적극 변화를 모색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다.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발전해 나간다는 토인비 이론이나, 헤겔의 변증법 또한 그 맥락을 같이한다.

“진짜 용기는 절망에서 나온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다”





출처 | www.imdb.com(Les Misérables, 2012)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에서 처칠은 외친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위험이 배가된다. 그러나 결연하게 위험에 맞선다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든다. 무슨 일을 만나거든 결국 도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We shall never surrender)!” 알고 보면 진짜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결국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아치로 된 3개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

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야! 인생에선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던가. 눈과 귀를 잃은 헬렌 켈러의 포착은 감동 그 자체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주식은 밥이나 빵이 아니라 오직 희망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다면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미술평론가, 로맹 롤랑은 “언제

까지 계속되는 불행이란 없다”고 말했다. 본시 천명은 하늘에 있고 뜻은 나에게 있다. 치명수지(致命遂志),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극복할 힘을 자기 안에서 찾아내고 하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다. 저 위대한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의 대사를 보라. “미래는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다.”

올해의 다른 말은 <해볼만 해>라고 한다. 푸른 뱀(靑蛇) 새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도전과 용기의 불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희망 없는 상황은 없다. 희망 없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을 지낸 시몬 페레스의 말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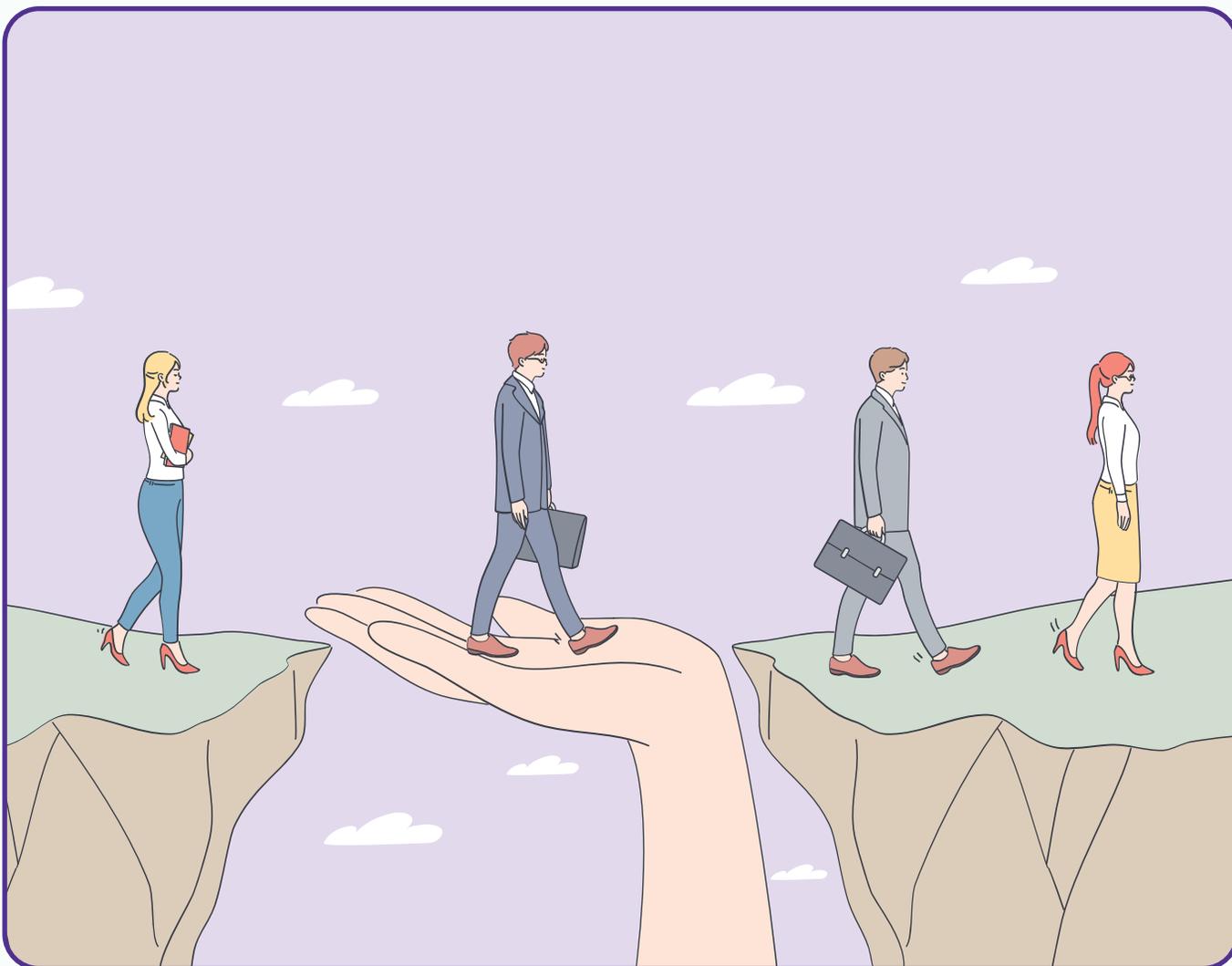


국내 저명한 칼럼니스트(조선일보, 국제 PEN클럽 정회원)이자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다. 기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및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시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불확실성에 맞서는 신뢰의 힘: 어떤 사람을 신뢰하나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안, 걱정, 혼란은 자연스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곤 한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안정을 찾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찾아보았다.



Profile

설진미

삼성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신체는 16~18세가 되면 대체로 성장이 멈추지만, 정신은 다릅니다. 내면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성장합니다. 단,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뢰(Trust)입니다. 신뢰는 흔히 쓰는 단어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인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관성'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오늘 약속을 내일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다시 말해, 신뢰란 누군가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나 상황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한 인물 중,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이의 필요와 기대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일관성이 있게 따뜻하게 돌봐준다면, 아이는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살만한, 긍정적인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곧 이것이 존재의 믿음과 희망이 되어 기본적인 신뢰감(Basic Trust)을 형성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신뢰가 단순히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재확인하고, 깨지기도, 또다시 쌓아 가기도 합니다. 즉, 신뢰는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초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위기가 경제적 불안을 불러왔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불확실성은 인간의 심리를 강타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직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많은 회사에서 '성과'와 '생존'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지만, 그 결과로 조직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구성원들은 점점 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되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설계해, 안정감을 느끼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CT(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의 원칙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내적 성장과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① 불확실성을 수용하기 (Acceptance)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뢰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연대할 때 깊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종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적어보세요. 팀 내 갈등을 예로 들면, 동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과 대화하며 내 태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모든 것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와 타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② 인지적 융합에서 벗어나기 (Cognitive Defusion)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인지적 융합)는, 그것을 단지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기: '이 팀에서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반응보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탐구하기: 갈등 상황에서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느낄까?'를 스스로 질문하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③ 행동으로 작은 변화 만들기 (Committed Action)

불확실성 속에서도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동으로 신뢰를 표현하기: 동료와의 경쟁만큼이나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동료와의 약속도 지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작은 기여하기: 팀에서 작은 기여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세요. 부서 간 경쟁이 있을 때, 이익을 나누는 협력 방식을 제안하거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이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믿는 것을 넘어, 자신이 타인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나누겠다는 의지입니다.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 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s), 1-20.

***YouTube [부모특강 5-1강] 아이의 '베이스캠프'가 되어라. 이승욱 강자, 한겨레TV 제작

SAMJONG · NEWS

다양한 매체 리그테이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 'Best PE Buyer' & 'Best PE Seller' & 베스트하우스 & 베스트 딜 부문 수상



딜사이트 베스트하우스 상을 수상한 삼정KPMG 하병제 부대표(오른쪽)



딜사이트 베스트 딜 상을 수상한 삼정KPMG 원정준 전무(오른쪽)

*사진 출처: 딜사이트

삼정KPMG가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주관하는 M&A 리그테이블 시상식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코리아 캐피탈마켓 더벨 리그테이블 어워즈'에서 삼정KPMG는 'Best PE Buyer'와 'Best PE Seller' 두 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1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딜사이트 IB 대상'에서도 삼정KPMG는 베스트하우스 상과 베스트 딜 상을 수상하며 업계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특히 삼정KPMG는 경기 둔화로 시장이 위축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수의 M&A 거래에서 활약을 이어왔으며, 전주페이퍼·전주원파워 매각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ACI 이슈 리포트' 발간 ... 내부회계관리제도서 감사위원회 역할 제시



지난 1월 16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ACI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삼정KPMG ACI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중점을 둔 분석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자금부정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진은 자금횡령 등 부정에 대응하는 통제 활동과 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 전략 세미나 개최

지난 2월 5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길원 삼성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가 보편관세 도입에 따른 국세와 관세의 정상가격,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조건 등을 다루며 이전가격 정책 관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김태주 세무자문부문 전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기존 세제 혜택 변화와 미국 관세법 주요 사항을 설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을 소개했다. 박원 컨설팅부문 전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주요 내용을 분석하며, 실현 가능성을 진단했다. 또한 수입규제 정책 변화,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법 적용 방향, 주요 산업별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한편 삼성KPMG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부터 FTA(USMCA 포함) 원산지 판정 시스템 구축, 수입규제 조사 대응, 이전가격 통합 자문, IRA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현지 법인 운영을 지원해왔다.

*Contact: 김태주 상무 taejookim@kr.kpmg.com

‘금융 리더를 위한 로우코드 멘덱스와 AI 활용 방안’ 조찬 세미나 공동 개최

지난 1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삼성KPMG와 멘덱스(Mendix)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 리더를 위한 로우코드 멘덱스와 AI 활용 방안’ 조찬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금융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도입 방안과 보안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최신 비즈니스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삼성KPMG MC1본부의 송재원 상무는 ‘AI와 함께하는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송 상무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같이 고객·마케팅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Mendix는 AI 기술이 적용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Low Code Platform으로, 삼성KPMG는 Mendix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End-to End 서비스로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Contact: 송재원 상무 jaewonsong@kr.kpmg.com



KPMG 한·일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위한 'Empowering Leadership Program' 개최

지난 1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KPMG 본사 교육장에서 'Empowering Leadership Program'이 개최됐다. 이 프로그램은 KPMG 한국과 일본의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위한 첫 협업 워크숍으로, 컨설팅 부문에 속한 총 14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 리더로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벗어나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동료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도전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선배 리더들의 경험담을 듣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 Q&A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을 얻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새롭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CES 2025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보고서 발간 및 대내외 강연 진행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CES 2025에 관한 보고서 발간 및 대내외 교육 등으로 미래 산업을 전망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20일에는 'CES 2025 프리뷰: 미리 보는 CES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해 올해 CES에서 특히 주목할 키워드별 주요 제품 및 기술을 설명했다. 12월 31일에는 'CES 2025: 놓치면 안 될 관전 포인트와 6대 트렌드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CES 출장을 앞둔 기업인들을 위한 유용한 Tip을 담았다. 행사가 열린 1월 7~10일에는 CES 2025에 직접 참가하여 AI, 로봇,

모빌리티 등 최신 기술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 'CES 2025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보고서를 1월 1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해 CES 2025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S.N.A.K.E'로 제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네트워킹(Networking), 인공지능(AI), 키네틱(Kinetic), 에너지(Energy)를 주요 테마로 분석했다. 아울러 CES 2025 10대 트렌드를 조망하며 혁신 제품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대내외 온라인 강연으로 CES 2025 관련 인사이트를 전파했다. 지난 1월 23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열린 '화산일주(화면 컨김에 산업일주)'에서는 'CES 2025 특집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약 600명의 고객사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테크놀로지 리더인 영승훈 부대표와 경제연구원 최창환 책임연구원, 류승희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발표했다. 또한 1월 17일에는 삼성KPMG 구성원을 위한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 지식)' 강연으로 CES 2025를 통해 포착 가능한 새로운 기회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CES 관련 보고서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나눔]

자립준비청년 IT 직무교육 프로그램 'IT's my future' 성료

삼정KPMG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IT 직무교육 프로그램 'IT's my future'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24년부터 5개월간 총 10명의 참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취업 준비는 물론 문화 생활과 멘토링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 2명이 일 경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생활 지원 '꿈나무 도서관' 사업 지속

삼정KPMG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조은아이들지역아동센터'의 도서관 개소를 지원한다. 매년 서울시 내 지역아동센터 중 도서관 및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한 1개소에 공간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독서습관 형성, 문해력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학습 기회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지원 활동을 펼쳐 변화된 제일강동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뇌병변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지속

삼정KPMG가 뇌병변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을 지속한다.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 장애 외에도 발달, 인지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치료, 생활보조 등 다방면에서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뇌병변 장애아동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나은 생활 속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올해에는 총 9명의 아동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Notice]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합니다!

주제: 2025년도 개정세법 주요 개정 사항 일사: 2월 20일(목) 14:00~17:20 문의: kr-fmtax@kr.kpmg.com

참가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참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마감: 2월 18일)



Time	Agenda	Speaker
14:00~14:05	인사말	최영록 고문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4:05~14:40	Session 1: 법인세법	설인수 상무 (조세1본부)
14:40~15:20	Session 2: 조세특례제한법	정연우 상무 (조세2본부)
15:20~15:50	Session 3: 국제조세	강성원 상무 (조세3본부)
15:50~16:00	Break time	
16:00~16:40	Session 4: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	류수석 상무 (조세3본부)
16:40~17:20	Session 5: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최세훈 상무 (조세4본부)

*강연자,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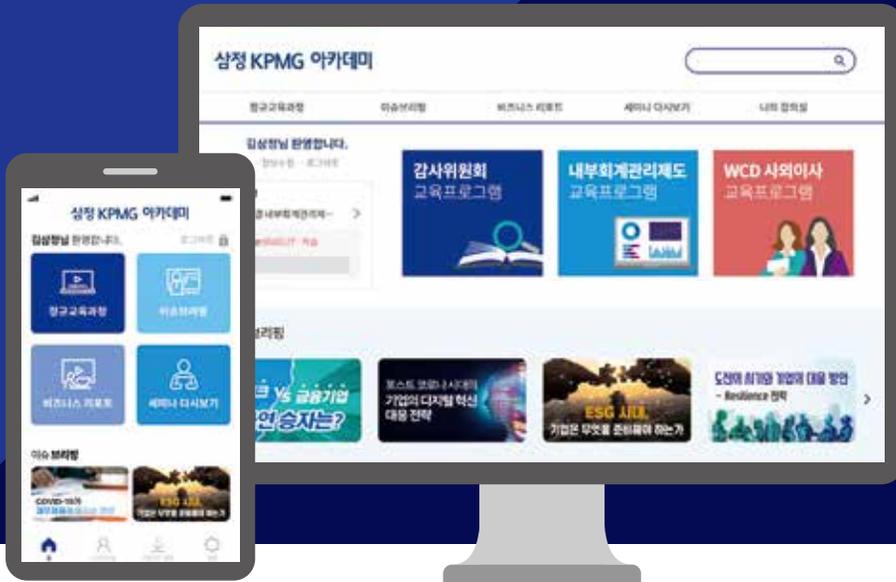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